

— EIAK 소식 —

'94년 전자공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94년 전자공업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6일(목)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0여 명의 전자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구자학 본회 회장, 채재익 공진청장, 안광구 특허청장, 정부 및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본회 구자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는 국내의 경기침체의 지속과 그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 그리고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 비용 등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어 우리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해 못지 않게 어려운 한해였다”고 회고하고 금년에는 국가경쟁력제고와 함께 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아가고 고부가가치의 신상품 개발, 적극적인 수출시장의 개척, 국제화시대의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전자산업의 재도약에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한해 산업현장과 수출일선에서 밤낮 없이 땀흘려 일해 주신 전자공업인 여러분의 노력을 치하”하고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우리에게 거센 도전으로 다가와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오를 것이며 이러한 현실은 국제경쟁력을 튼튼히 배양하는 길 뿐이라고 말하고 갑술년 새해에는 우리 전자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도약한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

할 것을 다짐하자”고 제의했다.



'93년도 종무식 및 '94년도 시무식 거행

본회는 '93년도 종무식 및 '94년도 시무식을 지난 12월 31일과 '94년 1월 3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거행하였다.

본회 임직원 모두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한규완 부회장은 “'93년도 전자산업의 대내외 여

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치하하고 '94년도는 지난 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 등으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로 우리 전자산업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급속도로 변화해 나아갈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전자산업이 아무리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혼신의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중무식에서는 모범직원으로 가전산업부 이진기 대리, 총무부 조규재 대리, 국제부 변현주 등이 본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CATV 기자재 전시회 및 세미나 추진 조찬회 개최

본회의 CATV기산업협회(회장 : 동양텔레콤(주) 배석채 사장)는 지난 1월 8일 팔레스호텔에서 국산 CATV 기자재의 전시 및 세미나 추진과 관련 업계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본회 한규완 부회장, 동양텔레콤(주) 배석채 사장 등 24명이 참석하여 국산 CATV 기자재 전시회를 오는 3월초에 개최키로 하고 전시회 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산 CATV 기자재 전시회 추진 소위원회는 고려엔지니어링, 대우전자, 동서전자 동양

텔레콤, 삼성전자, 삼창전자 등 6개사로 구성하고 동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방향을 수립해 나아가기로 했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모 니터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본회 11층 회의실에서 대우전자(주) 등 수급업체 7개사가 참석, 6φ Radial Tapping 반고정 저항기(6φ 0.1W, 6φ 0.3Wd용)에 대한 표준화 협의를 하였다.

커넥터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본회 11층 회의실에서 연호전자(주) 등 커넥터 업체 3개사가 참석, 압접식 커넥터의 일반적인 공통사양(전기적 특성 등) 및 외형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 협의를 하였다.

냉간고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과 12월 20일 2회에 걸쳐 본회 11층 회의실과 (주)한국리레이 인천공장 회의실에서 (주)금성사 등 수급업체 5개사가 참석, 전자식 냉장고의 Power Relay 표준화 협의 및 리레이 생산공장을 견학하였다.

진공청소기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주)금성사 창원공장 회의실에 삼성전자(주) 등 진공청소기 생산업체 3개사가 참석, 진공청소기용 흡입구 표준화 협의를 하였다.

TV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본회 11층 회의실에서 삼성전자(주) 등 수급업체 5개사가 참석, 20", 21" 칼라 TV의 Trans-Switching용 Bobbin 규격에 대한 표준화 협의를 하였다.